

그리스 감독 “한국팀 열정·단결력 돋보여”

■ 월드컵 이모저모

“한국 축구대표팀은 뜨거운 열정을 지녔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과 조별리그 첫 경전을 벌이는 그리스의 오토 레하겔 감독(71·독일)이 한국 대표팀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레하겔 감독은 지난 9일 그리스 스포츠신문 ‘스포츠타이’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강한 단결력과 열정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하겔 감독은 “우리는 그리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첫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레하겔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의 신체조건이 매우 좋다”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대륙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B조의 최대 강호인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공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100% 컨디션으로 싸워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전 한국 응원단 1000여명

태극전사들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첫 승을 위해 1000여 명의 12번째 전사들이 힘을 보탠다.

10일(이하 한국시각)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30분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리스와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찾는 한국 응원단 규모는 총 1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대표팀 서포터스인 붉은악마의 회원 30~40명과 아리랑응원단 등 한국에서 건너온 원정 응원단이 350여명이다. 이들은 남아공 현지 교민과 합세해 원정 월드컵 사상 첫 16강 진출을 목표로 첫 걸음을 떼는 한국 축구대표팀을 위해 열변을 올리는 데 나설 예정이다.

프리미어리그 감독들 “브라질 우승”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로 평가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은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에서 브라질이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FP통신은 10일 프리미어리그와 리그 감독연합회 후원을 받고 있는 바클레이스가 20개 구단 가운데 17개 팀의 감독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를 보도했

다. 여기에 따르면 17명 가운데 9명(53%)이 브라질이 우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스페인의 우승을 점친 쪽은 4명(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회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14명(83%)으로 압도적이었다. 득점왕 후보로는 스페인의 페르난도 토레스(리버풀)가 8명(47%)의 지지를 받아 선두에 올랐다.

조용형 '대상포진' 완치 출격 준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대상포진으로 축구대표팀 수비라인에 불안감을 안겼던 조용형(27·제주)이 정상을 회복해 그리스와 조별리그 1차전 출격 준비에 들어간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오전(이하 한국시각) “조용형이 대상포진에서 완치돼 오늘 팀 훈련부터 합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허정무호 부동의 중앙수비수인 조용형은 왼쪽 등 부위의 대상포진으로 피부 발진 및 통증을 호소해 최근 이틀 동안 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고, 선수단 전체가 휴식을 취한 9일까지 내리 사흘을 쉬었다.

'14명 출전' 바르샤 최고 명문 클럽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FC바르셀로나가 단일 클럽으로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에 가장 많은 선수를 내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 축구전문사이트 크로노콧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등 바르셀로나 소속 선수 14명이 이번 남아공월드컵에 각국 대표 선수로 참가한다고 10일 보도했다.

2위는 12명의 대표 선수를 배출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였다.

바르셀로나는 2009~2010시즌 ‘호화군단’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프리메라리가 정규리그 정상에 오른 최고 명문 클럽이다.

스페인 대표팀에는 바르셀로나 선수 8명이 이름을 올려 바르셀로나를 통째로 옮겨 놓은 듯하다.

한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본선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맞붙을 아르헨티나 최고의 골잡이 리오넬 메시와 프랑스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 수비수 에릭 아비달이 모두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개막식 의상을 차려입은 지원봉사자들이 리허설을 하기위해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꼬꼬마 키스톤’ 김선빈·안치홍 호랑이 상승세 원동력

세밀한 타격에 수비력도 급상승 신인티 벗고 KIA 내아에 새바람

김선빈·안치홍 ‘꼬꼬마 키스톤’이 KIA 타이거즈 내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선빈에게 올 시즌은 프로 데뷔 3번째 해, 안치홍은 이제 막 신인티를 벗은 2년차의 어린 선수다. 20살을 갓 넘긴 어린 선수들인데다 ‘작은 거인’으로 통하는 김선빈의 작은 키까지 더해져 유격수와 2루수로 손을 맞추고 있는 두 선수에게 ‘꼬꼬마 키스톤’이라는 애칭이 붙었다.

유격수 김선빈은 아직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했지만 84타수 26안타 0.310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루도 8개로 이용규(11개)·김원섭(10개)에 이어 팀 내 3위다.

최근 5경기 타율이 4할을 넘는 김선빈은 지난 8일에도 안타 3개를 터뜨렸다. 또 빠른 발과 재치있는 플레이로 3루 도루에 성공한 뒤 폭투때 홈까지 파고들면서 팀의 7-0 승리에 앞장섰다.

무엇보다 수비력이 급상승했다. 김선빈은 뛰어난 타격센스와 빠른 발을 가지고도 수비에 약점을 보이면서 ‘반쪽선수’로 평가 받았다. 특히 플레이 처리에 미숙한 모습을 보였던 김선빈은 올 시즌 침착하게 내야를 지켜내고 있다.

달라진 마음가짐이 김선빈의 플레이에 그대로 묻어난다. 김선빈은 경기 끝난 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홀로 배팅훈련을 하기도 한다. 경기와 상대 투수에 대한 분석을 담은 자신만의 필름 노트까지 작성하고 있다.

김선빈은 “인스트럭터로 오셨던 마츠바라 코치,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매일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며 “또 편한 마음으로 수비에 나서고 경기를 하려 하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



〈김선빈〉 〈안치홍〉

난해 수비에서 실수가 많았는데 올 시즌 실책도 한자리로 줄이고 도루도 20개 이상을 기록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치홍도 2년차 징크스를 맞았다. 지난해 14개의 홈런을 터뜨렸던 것에 반해 8일 현재 홈런 개수가 2개에 불과하지만 대신 세밀함을 더했다. 선배들의 동반 부진이 이어지던 타선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인 안치홍은 8일 현재 0.281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수비에 서도 물이 올랐다.

폭 넓은 수비 범위를 과시하는 안치홍은 2년차 답지 않은 호수비로 광저우 아시안게임 2루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야구 욕심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경기 끝난 후 그라운드 한쪽에서 묵묵히 배트를 휘두르는 안치홍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3번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줄곧 테스트를 받기도 했다.

안치홍은 “3번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다. 하지만 뒤에 최희섭 선배가 있는 만큼 상대가 더 어렵게 승부를 해오기 때문에 하위타순보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안치홍은 2루수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패기 넘치는 플레이와 재치있는 모습으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꼬꼬마 키스톤’의 움직임이 KIA의 뜨거운 6월을 예고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부산서 광파르

광주 27개종목 530명, 전남 34개종목 830명 출전

전국 1800만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인 2010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11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열린다.

올해로 10번째 열리는 이번 축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만3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역동하는 부산, 함께하는 건강’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축전은 29개 정식종목(축구·배드민턴·씨름 등), 10개 시범종목, 대학동아리 2개종목(축구·농구), 장애인종목 6개(볼링·테니스·당구 등) 그리고 3개 전시종목(우슈·룬볼·파크골프) 등 총 50개 종목에 걸쳐 시도가량을 겨루게 된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는 이번 축전에 게이트볼·검도·생활체조·축구 등 27개 종목에 530여명이 참가하며 11일 오전 10시30분 시생활회 1층 게이트볼구장에서 결단식을 갖고 출정한다.

전남도생활체육회(회장 이탁우)는 34개 종목에 830명이 참가한다. /시승원기자 swseo@

Advertisement for '장속바다장어' (Jangsook Bada Jang-eo) featuring a chef and various seafood products. Text includes '장속바다장어' and '092-383-1110'.

Advertisement for '칠만표 방수제' (Chilmanpyo Bangsuje) featuring a woman and a boat. Text includes 'SINCE 1984', '칠만표 방수제', and '092-383-1110'.